

싸이클로헥산 시장 유공 독점 탈피

동양나이론 94년 16만4000톤 공장건설 ... 미국 Texaco C-H 가동 중지

미국 Texaco Chemical이 Port Arthur 소재 Cyclohexane(C-H) 공장의 가동을 중지하는 반면, 국내 기업은 카프로락탐 등 관련공장 가동과 함께 C-H공장 건설을 추진, 국내 C-H시장이 독점공급체제에서 이원공급체제(?)로 전환될 전망이다.

외신에 따르면, 미국의 Texaco는 C-H가격 하락 및 구식 프로세스 사용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Port Arthur소재 C-H공장 가동을 중지했으며, 이 공장은 93년6월 이후에나 정상 가동될 전망이다. Port Arthur C-H공장은 Texaco의 최대 방향족 단지내 위치하고 있으며, 벤젠 생산능력은 6000만톤 규모에 달하고 있다.

미국내 C-H 총 생산능력은 3억9000만갤론에 달하며, 94년기준 수요는 4억5000만갤론에 이를 것으로 전망,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Texaco가 C-H 공장가동을 중지한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.

<표> Cyclohexane 관련제품 수요전망

(단위:톤)

용도	구	분	1991	1992	1993	1994	1995	1996
Anone	공급	한국카프로락탐	80,000	80,000	80,000	80,000	80,000	80,000
		동 양 나 이 론	0	0	0	108,000	108,000	108,000
		소 계	80,000	80,000	80,000	188,000	188,000	188,000
	수요	한국카프로락탐	73,000	73,000	73,000	73,000	73,000	73,000
		동 양 나 이 론	0	0	0	108,000	108,000	108,000
		한 화 락 탐	0	0	0	32,000	63,000	63,000
		용 제	7,000	7,000	7,000	7,000	7,000	7,000
		소 계	80,000	80,000	80,000	219,000	251,000	251,000
	과 부 족		0	0	0	-32,000	-63,000	-63,000
K-A Oil	공급	동 양 나 이 론	0	0	0	42,000	42,000	42,000
	수요	한 불 화 학	42,000	42,000	42,000	42,000	42,000	42,000
	과 부 족		-42,000	-42,000	-42,000	0	0	0

주) C-H 수급전망은 본지 14W15호 참조, 생산능력은 조업기준, 동양나이론·한화락탐 정상가동 기준

그러나 미국에서는 낡은 공법의 공장가동을 적극 중지 및 폐쇄하고 있으며, 대표적으로 89년 Unocal사가 3000만갤론 규모의 C-H공장 가동을 중지했다. 반면, Dupont의 Corpus Ch-risti소재 5000만갤론 규모 및 Atochem의 3000만갤론 규모의 낡은 공장은 계속 가동될 전망이다. 미국 아디픽산용 및 나일론6 카프로락탐용 수요는 정체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반면, 국내 C-H 시장은 현재 유공이 연산 10만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, 독점공급하고 있으나 94년경 동양나이론이 카프로락탐공장 건설에 따른 원료 자급차원에서 16만4000톤 규모의 C-H공장을 신규 건설할 계획이다.

따라서 국내 C-H 공급능력은 동양나이론이 카프로락탐공장을 예정대로 건설할 경우, 94년경 26만4000톤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.

또 C-H 수요는 93년까지 9만8000톤 규모로 정체될 전망이나, 동양나이론(12만톤 규모) 및 한화락탐(7만톤)의 카프로락탐 공장이 예정대로 완공될 경우 94년경 C-H 수요는 26만2000톤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.

수요 제품별 현황은 Anone이 94년기준 한국카프로락탐 7만3000톤, 동양나이론 10만8000톤, 한화락탐 3만2000톤, 용제 7000톤 등 총 21만9000톤의 수요가 발생하나, 공급은 한국카프로락탐 8만톤, 동양나이론 10만8000톤 등 총 18만8000톤에 그쳐 3만2000여톤이 부족할 전망이다.

K-A오일은 94년경 동양나이론이 4만2000톤을 생산할 예정이나, 현재 한불화학은 전량을 수입에 의존했었다.

따라서 올해 C-H 수요는 카프로락탐용 8만5000톤, 용제용 1만2000톤, 유공의 PE/PP용 2000톤 등 총 9만8000톤에 불과하나 94년에는 기존의 한국카프로락탐용 8만5000톤, 용제용 8000톤, 유공 PE/PP용을 제외하고도 동양나이론의 Anone용 12만2000톤, K-A오일용 4만2000톤 등의 신규 수요가 발생, 총 26만2000톤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.

94년경 C-H 공급은 유공 이외 동양나이론도 합세하게 되는데, 가동초기에는 카프로락탐공장의 100%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자체 소비용을 제외한 C-H 전량을 내수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.

한편, C-H가격은 벤젠가격에 따라 좌우돼, 미국기준 벤젠가격은 갤론당 1.30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, C-H가격은 갤론당 2센트 오른 1.38~1.4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.

<화학저널 1992/9/1>